

변수는 정보를 저장하고 쓸 수 있게 해주는 '이름표'같은 개념입니다. 변수는 왜 추상화의 한 종류일까요? 한 번 변수를 정의하고 나서 이후에 그것을 사용할 때, 변수의 이름만 알면 되고 그 값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.

```
# 우사인 볼트의 평균 속도 = 10.438413361 m/s
```

```
# 1초에 달릴 수 있는 거리 (m/s)
```

```
speed = 10.438413361
```

```
print(speed * 60) # 1분(60초) 동안 간 거리
```

```
print(speed * 120) # 2분(120초) 동안 간 거리
```

```
print(speed * 180) # 3분(180초) 동안 간 거리
```

```
626.3048016600001
```

```
1252.6096033200001
```

```
1878.91440498
```

변수의 기능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, 지정 연산자가 하는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.

지정 연산자 (Assignment Operator)

```
x = 2 + 1
```

```
print(x)
```

```
x = x + 1
```

```
print(x)
```

```
3
```

```
4
```

수학에서 $=$ 은, "수학적으로 같은 값을 지닌다"는 뜻입니다.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.

이 기호는 지정 연산자(Assignment Operator)로서,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'지정'해주는 역할을 하죠.

예를 들어 첫째 줄인 `x = 2 + 1`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`2 + 1` 즉 `3` 이, 왼쪽에 있는 변수인 `x` 에 지정됩니다. 이에 둘째줄의 `print(x)` 가 실행되었을 때, `x` 가 저장하고 있는 `3` 이 출력됩니다.

이제 살짝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 셋째 줄의 `x = x + 1` 이라는 표현은 수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죠?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오른쪽의 값이 우선 계산된 뒤에, 왼쪽의 변수에 지정되기 때문입니다. `x` 가 현재 `3` 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, `x = x + 1` 의 오른쪽 값은 `4` 가 됩니다. `4` 라는 값은 왼쪽 변수인 `x` 에 지정됩니다. 따라서 네번째 줄의 `print(x)` 가 실행되었을 때, `x` 가 저장하고 있는 `4` 가 출력됩니다.



수업을 완료하셨으면 체크해주세요.



수강생 Q&A 보기



(/questions?
질문하기

assignment_id=36&sort_by=popular)
(/questions/new?

assignment_id=36&op1=%ED%94%84%EB%A1%9C%EA%B7%B



이전 강의
변수 (/assignments/35)

다음 강의
변수 연습 > (/assignments/37)